

담화 준칙에 대한 연구*

최 재 호**

目 次

- I. 들어가는 말
- II. 그라이스의 대화이론
- III. 그라이스 이론에 대한 비판
- IV. 적합성의 원리
- V. Orechionni의 담화 준칙과 새로운 준칙의 설정
 - 1. 예의 준칙
 - 2. 상황 우선의 준칙
- VI. 맥락과 담화준칙
- VII. 맺는말

I. 들어가는 말

언어의 교환이라는 것이 얼핏보기에는 발화 상호간의 출현을 제한하는 아무런 규칙의 적용 준수없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상 일상 대화의 대부분은 동문서답하는 경우나 화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치 못했을 경우 또는 예의에 크게 벗어난 상태로 대응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진다. 이러한 '성공'은 하나의 발화가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잠재적으로 수많은 상이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신기한 일이다. 즉 한 발화가 의미상의 중의성이나

* 이 논문은 1992년 숭실대학교 교내 학술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

**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교수

불완전성 때문에 단일한 표면 의미를 지니고 있더라도 여럿의 사고 내용을 표현할 수도 있고, 동일한 사고 내용을 표시하는 동일한 문장이라도 상황에 따라 표현된 내용에 대한 화자의 책임정도나 관련정도가 상이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사고 내용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발화가 다른 사고 내용을 묵시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하나의 발화는 이렇게 수많은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일상의 언어 교환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청자는 당시의 발화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응발화를 즉각적으로 생성한다. 또한 화자도 청자가 자신이 의도한 대로 추론을 행하리라고 가정한다. 청자가, 화자가 의도하는 결론들만을 추론하게 되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어떤 공통 규칙을 준수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한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대화를 주고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많은 규칙들을 습득해서 준수해야 한다. 이 규칙들의 명칭은 학자마다 다르다.¹⁾ 우리는 여기에서 담화 준칙이라 통일해 부르기로 한다.

문장 내부상의 구성을 통제하는 통사 규칙은 명시적이며 강제적 준수 사항이지만 그것의 위반은 흔히 일어나며 화자의 언어 능력이나 사회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받는 일은 드물다. 그런데 정상적 대화 교환에 묵시적으로 개입 작용하는 담화 준칙들은 언어적 뿐만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하며 그것의 위반은 때로는 치명적이기까지 하다. 대화시 동원되는 이러한 규칙에 처음으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한 사람은 Grice 였다. 우리는 우선 Grice 의 분석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비판과 수정 제안을 검토한 후 새로운 준칙을 설정해 볼 것이다. 담화 준칙은 또한 발화 생성시의 맥락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화자와 청자를 둘러싼 모든 요소들이 담화 준칙의 선택 적용에 관계한다. 따라서 우리는 맥락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도 살펴 볼 것이다.

1) 예를 들면 Grice는 Maxims ou principes conversationnels 이라 하고 Ducrot는 lois de discours, Lakoff는 postulats de conversation, Revzine는 postulats de Communication Normale이라 부른다. 이것에 대한 번역 자체가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 내는 게 될 것이다. 우리말로는 대화규칙, 대화공준, 담화규칙, 담화준칙 등이 쓰이고 있다.

II. 그라이스의 대화이론

그라이스는 1967년 하바드 대학에서 행한 William James 강연에서 의사소통이 '협동원리'와 '담화준칙'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라이스가 이 강연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생각은 한 발화가 소통되었을 때 화자가 일정한 일반 기준들을 만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일반적 기준과 화자의 행위에 대한 관찰, 그리고 맥락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추론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그라이스는 언어적 통화에만 국한시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는 대화 참가자들이 준수하리라고 기대하는 일반원리를 다음과 같이 공식화 할 수 있다. 즉 진행되고 있는 대화의 한 단계에서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가 수용한 목적 또는 방향이 요구하는 바대로 당신의 대화가 공헌하도록 만들어라'²⁾ 이것이 Grice의 협동원리이다. 그리고 그는 하위범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준칙을 설정하고 있다.

- 1) 양의 준칙 : 당신의 기여가 충분히 정보적이 되도록하라.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마라.
- 2) 질의 준칙 : 진실을 얘기하도록 하라.
- 3) 관계의 준칙 : 대화의 주제와 관련있는 것을 얘기하라.
- 4) 방법의 준칙 : 모호하게 얘기하지 마라. 중의성을 갖지 않도록하라. 분명하게 얘기하라. 순서대로 말하라.

언어적 발화를 지배하는 일반 기준들을 이렇게 설명할 때 의미상으로 중의적이고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발화가 어떻게 유일한 의미를 가진 표현으로 해석되는지 설명이 가능해진다. 청자는 화자가 협동의 원리와 네가지 준칙을 따르고 있다는 가정하에 준칙과 모순되는 가능 의미들을 배제하고 남는 것만을 화자가 의도한 내용이라고 추론을 하게된다. 이때 화자도 준칙을 준수하여 자신의 발화가 하나의 가능 의미만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Grice의 이러한 분석은 발화가 갖는 함축 의미에 대해 처음으로 체계적인 해석을

2) Grice, 1975, p.45

시도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여러 부분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이해가 안가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일상 대화에서 위의 준칙과 어긋나게 얘기하는 경우가(화자와 협동 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도) 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Grice의 이론은 창시자로서 다른 연구자들의 필연적인 언급의 대상이 되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비판의 표적이 되어왔다.

III. 그라이스 이론에 대한 비판

Grice의 견해는 분석 철학의 합리적 전통에 충실하고 있다.³⁾ 청자가 함축을 해독하기 위해 수행하는 해석적 계산은 전적으로 합리적, 이성적인 것이다. Grice의 준칙은 일상대화가 아주 올바른 화자들간의 완벽한 교환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화자와 청자가 이상적으로 협조하며 또 모든 화자가 옳다고 믿는 것만을 말한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실지 이루어지는 대화의 대부분은 이와 같지 않으며 따라서 극히 일부분의 대화에서만 Grice의 준칙이 참이다.

화자가 한 발화를 생성하면서 동원하는 능력에는 통사적·언어적 능력, 상상적 능력, 백과 사전적 능력, 화용 수사적 능력, 논리적 능력⁴⁾이 있다. 이중 함축을 추론하는데 쓰인다고 볼 수 있는 위의 셋중 Grice는 논리적 능력만을 고려하여 준칙을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백과 사전적 능력이나 화용 수사적 능력이 없는 3, 4살짜리 어린이들이 Grice적 의미에서 볼때 가장 이상적인 협조자라 할 수 있다.

Caron은 Grice의 지적이 표면적으로만 체계적일 뿐이라고 비판한다.⁵⁾ 즉 일부분의 대화를 설명하는 데만 적합하다는 것이다. Grice 자신도 준칙의 숫자를 늘일 수도

3) Grice의 분석과 담화 준칙의 분류는 Kant의 분류와 흡사하다.

4) Orecchioni는 화자가 발화를 해석하기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능력을 백과 사전적, 언어적, 논리적, 화용·수사적 능력으로 나누고 있다. 인간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거나, 듣고 보지 못한 것을 창조하는 능력도 갖고 있으므로 위의 네가지에 상상적 능력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5) Caron, 1983, p.100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Ducrot는 위와같은 규칙이 언어 분석에서 개입하는 방식에 관해 언급한다.⁶⁾ 그에 의하면 Grice는 한 발화의 의미분석에서 화용적 측면을 최대한 제외시키기 위해 준칙을 사용한 것이다. 즉 발화는 문자적 의미만 갖고 있는 정보핵으로 한정하고 담화준칙은 상황에 처한 발화가 갖는 논증적 또는 대화적 의미를 고려하고자 할 때 개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발화가 갖고있는 상황 연관적 의미와 문자적 의미를 구별하는 것은 분석상·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일이나 발화 현장에서는 모든 것이 융합되어 하나의 의미만이 선택 되어질 뿐이다. 따라서 발화의 화용적 측면이란 것은 발화에 근원적으로 통합되어있는 것으로 그것을 제외시키기 위해 담화준칙을 설정하였다는 것은 분석의 인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Sperber와 Wilson은 Grice의 준칙이 함축 의미를 추론하는데 있어 상식적인 해석만 허용한다고 지적한다.⁷⁾ 즉 농담이나 아이러니, 상황적 의미를 포함한 발화등을 해석하는 데 적합치 않다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Grice의 준칙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비판을 받아왔다. 그들은 준칙의 내용과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적임을 지적하며 다른 준칙의 설정을 제안한다. 우선 Sperber 와 Wilson 의 적합성 원리에 대해 살펴보자.

IV. 적합성의 원리(The Principle of Relevance)

Sperber와 Wilson은 Grice의 준칙들을 적합성의 원리 하나로 축소에 설명한다. 이것은 인간의 의사소통 행위에 있어 예외없이 적용되는 지극히 일반적인 원리로서 의사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 원리의 준수 여부와 관련된 문제와는 아주 성격이 다르다. 적합성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⁸⁾ ‘모든 직시적 의사소통 행위⁹⁾는 그 자체에 최적의 적합성이 존재한다는 추정을 통화한다. 이때 최적의

6) Ducrot, 1979.

7) Sperber and Wilson

8) Sperber, Wilson, p.214

9) 어떤것을 현시적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현시적으로 나타내게 하는 행위를 직시행위라 한다.

적합성이 존재한다는 추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할 수 있다.

- a)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고자하는 상정 내용은 그 직시적 자극을 청자가 처리할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충분한 적합성을 지닌다.
- b) 그 직시적 자극은 화자가 상정 내용을 통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극들 가운데 가장 큰 적합성을 지닌 것이다.

Sperber와 Wilson에 의하면 적합성 원리는 그 자체가 어떻게 언어구조와 배경 지식이 상호 작용해서 언어 이해를 성취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원리이다. 그러므로 여타의 화용론적 규칙이나 격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그 특색이다.¹⁰⁾ 적합성 원리의 공통된 유일한 목적은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달성으로 즉 화자의 제보적 의도가 청자에 의해 인식되는 것이다. 그러나 Grice는 성공적인 의사소통 달성이외에 더 높은 정도의 협동 행위가 게재한다고 생각한다. 즉 '하나의 또는 일련의 공통 목적이나 최소한 상호가 수용하는 하나의 방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rice가 언급하고 있는 '협동'이 항상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정보를 다 제공 않기도 하고 질문에 최선을 다해 대답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우리가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Grice의 준칙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며 청자는 화자의 발화행위를 해석하는데 이 준칙을 사용한다. 적합성의 원리는 이와달리 의사소통의 필요한 조건이 아니며, 어기고 싶어도 어길 수가 없는 것이고 예외없이 적용되며 모든 직시적 의사소통 행위는 적합성이 존재한다는 추정을 전달한다.

우리는 적합성의 원리가 그라이스의 준칙보다 훨씬 더 명시적임을 알 수 있다. Grice의 준칙들은 '올바른', '모범적인' 의사소통 현상만을 설명하나 화자가 다른 의도가 있었을 때나 감정상의 변화가 있을 때 등은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적합성'이란 용어가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 누구에게 무언가를 보이는 것은 직시행위의 한 예다. 의도적 의사소통 행위도 역시 직시적 행위라 할 수 있다.

10) Ibid, p.359

적합해야 하고 어느정도 적합해야 되는 지를 알기 위해서 일상적인 발화에 관계하는 모든 것들, 즉 시간적 장소적 요인, 모임의 성격, 전달정보의 수준, 청자와의 관계, 청자의 지적 기민성 등을 고려해야한다. 결국은 세부 사항에 대해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Sperber와 Wilson도 하나로 줄여 설명하는 데는 '성공' 했지만 결국은 세부설명에 많은 page를 할애하고 있다.

V. Orechionni의 담화 준칙과 새로운 준칙의 설정

Sperber와 Wilson은 담화준칙을 적합성의 원리 하나로 통합해 설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학자들은 Grice의 준칙을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준칙들을 설정하고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으로서 Orechionni의 분류를 들 수 있다.¹¹⁾ 그는 주 원칙으로 협동의 준칙, 적합성의 준칙, 성실성의 준칙을 들고 세부원칙으로 새정보 제공의 준칙과 최대 정보전달의 준칙을 들고있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고 다른 준칙의 보충 가능성에 대해 논해보자.

1. 협동의 준칙(le principe de coopération)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Grice는 협동의 준칙을 다른 모든 준칙에 우선시킨다. 대화가 일반적으로 서로 연관성을 갖고 이어지는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협동하려는 노력때문이다. 이 협동의 원리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므로 의사소통 상호행위에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원리로서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이 원리를 우선적으로 인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Grice의 준칙을 비판했던 Wilson과 Sperber도¹²⁾ 어느 정도의 협동은 화자가 청자에게 가능한 최대의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라고 말한다. 성격상으로 비협조적인 화자도

11) Orechionni, 1986, p.196-232

12) Wilson and Sperber, 1986, p.93

필요에 의해 협조적이 될 수 밖에 없다. 협동의 준칙은 이렇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타당성을 갖고 있지만 너무 이상적이라는 비판은 면할 길이 없다. Grunig 도 언쟁이나 망친 대화처럼 협동하지 않으면서 진행되는 대화가 오히려 통계상으로 많을 수 있으므로 협동 준칙은 너무 제한적인 원리라고 지적한다.¹³⁾

2. 적합성의 준칙(la loi de pertinence)

Sperber와 Wilson은 한 발화에서 즉각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결과를 끄집어 낼 수 있을 때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Grice의 준칙 모두를 적합성 원리 하나로 모든 준칙을 귀결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Grice는 이 적합성 원리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비판한다.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고 적합성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대화의 주제를 바꿀 때 쓰이는 정상적 과정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¹⁴⁾ Orechionni는 이 적합성의 준칙을 Wilson처럼 폭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Grice의 관계의 준칙과 유사한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3. 성실성의 준칙(la loi de sincérité)

이것은 화자의 기여가 진실해야 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말해야 한다는 준칙으로 Grice의 질의 규칙과 비슷하다. 이것은 단언문 뿐만 아니라 의문문에도 적용되어 대답을 알고싶은 진지한 욕구가 있을 때만 의문문을 발해야하며 지킬 의사가 있을 때 약속이나 맹세를 해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준칙은 사람들이 종종 남을 속이거나 고의로 틀린 정보를 전달하는 걸 생각한다면 일반성에 문제가 있다.

4. 새 정보 제공의 준칙(la loi d'informativité)

이것은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나 기정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13) Grunig, in Orechionni, p.197

14) Grice, 1979, p.61

것을 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준칙은 모든 화자들이 근본적으로 지키는 것으로서 이것의 위반은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효과를 불러 일으킨다.

5. 최대 정보 제공의 법칙(*la loi d'exhaustivité*)

이것은 화자가 자신이 말하는 주제에 대해 최대한의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위의 다섯가지 준칙이 발화 현상 전부를 설명하기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위에서 언급한 준칙과는 다른 원리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대화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예의 준칙과 상황 우선의 준칙 두가지를 보충하기로 한다.

6. 예의 준칙(*la règle de politesse*)

Lakoff는 청자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욕구가 Grice의 준칙의 일부 또는 전부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의 준칙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다.¹⁵⁾ 사실 우리는 상대방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 상대방의 논리를 존중해 주기 위해 또는 상대방의 사회적 신분을 고려해서 사실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치 아니하며,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¹⁶⁾ Grice 준칙대로 얘기했을 경우 언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화용적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 되는 일이 많이 있다. 예의 준칙은 일반적으로 다른 준칙에 우선한다.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관습사항으로서 사회문화적 습득과 관계가 있는 규제

15) Lakoff, 1973, in Lyons, 1980, p.220

16) 존대법이 극도로 발달한 한국어나 일본어에서 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Naoyoshi는 일본어에서 내가지 담화준칙을 꼬집어 내고있다. 상대방 지향의 논리, 망설임의 논리, 모호함의 논리, 변명의 논리가 그것이다.(Naoyoshi 1979) 최재호는 한국어에 다음과 같은 5가지 준칙이 있다고 분석한다: 상대방 우선의 준칙, 겸양의 준칙, 정확함을 회피하는 준칙, 나보다 우리를 중시하는 준칙, 우회해서 말하는 준칙. 이 다섯가지는 모두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관습에서 나온 것으로 예의 준칙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최재호, 1988, p.198-216)

요인들이 있다.¹⁷⁾ 상호성의 법칙이라 불리우는 것으로서 얘기를 들으면 대꾸해야 하고, 대꾸가 지체되어서는 안되며 인사를 받으면 인사를 해야하고 혼자만 얘기해서는 안되고 즉 번갈아서 얘기 한다는 것등을 말한다. 이러한 규칙들의 위반은 의사소통 자체를 무너뜨리기 보다는 예의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습사항들도 예의 규칙의 일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7. 상황 우선의 법칙

대부분의 담화에서는 담화준칙의 적용이 무의식적, 순간적으로 행해지면서 청자의 대응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반면에 어떤 발화들은 청자가 대응하기에 앞서 화자가 그와같은 발화를 생성한 이유와 진정한 의도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다. 즉 의미상으로 모호하거나 상황요인에 의존해 문중 어떤 요소가 생략되거나 압축된 것, 또는 어휘상이나 통사상으로 명백한 실수를 내포하고 있는것과 은유적 반어적 의미를 띄고있는 농담들이 그것이다. 우선 몇개의 예를 들어보자.

- 1) ‘어디로 갑니까?’ 교수 수양회로 낙산에 가기로 되어 학교에 모인날 버스속에서 한 교수가 옆에 앉은 동료에게 묻는다. 목적지를 모르고 그저 나오라니까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표정을 보니 진지하고 주변을 의식치 않고 큰 소리로 질문하는 걸 보니 다른 뜻이 있는 것 같다. 청자는 따라서 낙산으로 가지요라는 대답을 보류하고 낙산이 있는 영동으로가는 방법이 세가지 있으므로 ‘어디를 경유해 갑니까’에서 ‘경유해’가 빠진 것이라 추론해 ‘한계령으로 갑니다’라고 응답한다.
- 2) ‘계피가 뭐지?’ 남편이 신문보다 말고 갑자기 아내에게 묻는다. 아내는 처음에는 계피가 계피지 무슨 똥딴지 같은 질문인가 생각하나 두사람이 외국체류시 사곤 했던 물건 이름이 불어로 생각나지 않아 가끔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던 걸 상기하고 불어로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이라 생각하고 대답한다.

17) Marc 와 Picard 는 발화를 제한하는 가변적 요소로서 맥락(contexte)와 규제요인(regulations)을 들고 후자속에 담화 준칙을 포함시키고 있다.(Marc, Picard, 1989)

- 3) ‘레미콘 작동법을 몰라서 불편해.’ - 노교수가 찾아온 제자한테 기계다루는 데 영 소질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 문장을 발한다. 제자는 화자가 여러 여건상 레미콘 같은 특수 차량을 다룰 일이 없을 것이므로 리모콘을 잘못 발음한 것이라 추론하고 대응한다.
- 4) 농담의 경우: 내노라하는 의사들이 모여 망년회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수의사가 한명 끼어 있다. 한 의사가 이것이 못마땅해 수의사에게 한마디 한다. “닥터김! 당신은 개나 돼지병을 주로 고친다니면서요?” 이때 수의사는 이 발화가 상황상으로 보아 단순한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고 “예 그런데요, 헌데 어디가 편찮아서 그러시죠?”라고 대꾸한다.

사실 이런 발화들에 대해서 청자가 ‘정상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화자는 자신의 의도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고 청자를 탓할 수는 없다. 화자는 자신의 제보적 의도가 이중으로 해석되게 발화를 만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청자는 그러나 화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발화를 행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모든 주변적 상황적 지식을 재검토해 적절한 대응 발화를 내보낸다. 발화 해석시 상황요인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상황 우선의 준칙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준칙은 또한 문장이 가진 정보적 요소와 상황적 요소가 대립할 때 상황요인이 우선한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

VI. 맥락과 담화 준칙

한 발화가 의미상의 중의성, 가변성이 없이 유일한 확정적 의미만을 갖고 있다면 청자도 여러 가능의미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없이 그리고 추론을 행할 필요없이 그대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마치 한쪽에서 자판을 두드리 입력한 것이 그대로 다른쪽 화면에 출력되듯이. 그러나 언어 교환적 의사소통은 단순한 신호의 기계적 전달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문화적 전제가 개입하는 행위이며 발생과 해석에 필연적으로 화자와 청자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함께 이

동하며 간접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언어 내부구조 연구만으로는 대화분석에 한계가 있고 언어라는 것을 형식적 기호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용으로 보아야 분석이 제대로 행해질 수 있다.

발화의 생성, 해석에 관여하는 요소들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변적이지만 정적요소로서 언어 교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논증전략, 논증방향성같은 동적 요소가 있다. 우리는 이중 전자를 맥락(contexte)이라 부르기로하자. 발화들은 확고부동하고 객관적이며 어느 상황이나 들어맞는 의미를 갖는게 아니고 쓰여지고 말해지는 당시의 맥락에 의해 한정을 받게된다.

Picard는 맥락이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¹⁸⁾ 언어적인 것으로서 앞선 문장들과 같은 문맥과 언어외적인 것들로서 발화시의 시·공간적 상황, 사회제도적 요소, 대화 참가자간의 관계등이다. 우리가 카페에서 얘기를 주고 받을 때와 교회나 사무실에서 말할때 같은 어투로 얘기하지 않는다. 또 같은 발화라도 천천히 말했을 때와 빨리 얘기할때 의미상의 차이가 있으며 어제 말했을 때와 오늘 말할 때가 다르다. 제도적 요소라는 것은 모임의 사회적 성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직업적 모임인지 연인끼리의 만남인지 또는 우호적 모임인지에 따라 발화가 다르게 만들어지게 된다. 대화에는 두명 이상의 참가자가 있게 되는데 그들의 사회적 신분과 말투, 특정 표현의 선호에 따라 발화 선택이 상이해진다. 게다가 언어 상호교환은 개개 참가자의 고유한 입장뿐만 아니라 쌍방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상호관계는 서로간에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일방적 강요 관계는 안된다. 예를 들면 장교는 사병에게 '연병장 세바퀴 돌아'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사병은 장교에게 같은 지시를 내릴 수는 없다.

Sperber 와 Wilson 에 의하면 맥락이란 발화를 해석하는데 사용되는 일련의 전제들이다. 맥락은 심리적 구성체로서 화자가 세계에 대해 지니고 있는 지식의 전집합이다. 즉 미래에 대한 기대, 과학적 가설이나 종교적 신념, 일화적 추억거리, 일반 문화적 인식, 화자의 신념등을 말한다.¹⁹⁾ 이때 발화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18) Marc et Picard, 1989, p.153

19) Sperber and Wilson, p.363

것은 물론 세계의 실제 상태가 아니라 바로 이 세계가 의식에 투영된 상태이다. Sperber와 Wilson의 맥락은 담화공간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담화공간의 구성요소중²⁰⁾ 문법적 지식, 축적된 지식 등과 같이 일단 습득한후 고정된 것을 제외하고 발화시마다 입력되는 가변적인 요소들을 기리킨다. 위에서 본 맥락의 여러 요소들은 담화준칙의 선택, 적용 우선 순위의 설정에 영향을 미친다.

VII. 맺는말

일상 생활에서 행해지는 대화들은 그것이 단순하고 평범할지라도 통사적 규칙 이외에 어떠한 규칙을 지키며 행해진다. 이러한 준칙은 대화 참가자들이 대화시 지키도록 요구받는 올바른 행위규범 같은 것으로서 모든 다른 사회 행위처럼 암묵적인 계약에 근거하고있다. 언어 교환행위를 묵시적으로 제어하고 있는 준칙에 대해 처음으로 분류·언급한 사람은 Grice 였다. 그러나 우리가 본 논문에서 살펴 본 것처럼 Grice에 의해 제안된 준칙들은 모호하고 이론의 여지가 많고 상호간에 중첩되며 모든 대화행위를 설명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좀 더 포괄적인 규칙들이 제안되어왔다.

Orechionni 는 Grice 의 준칙을 수정 보완하여 협동의 준칙, 적합성의 준칙, 성실성의 준칙 등의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Sperber 와 Wilson 은 대화의 전개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원리를 적합성 원리 하나로 축소설명한다. 대화시 작용하는 모든 언어적, 언어외적 기제들이 모두 적합해야 한다는 이론에는 무리가 없으나 이 경우 무슨 조건이 어느정도 적합해야 하는지 분류할 필요성이 생긴다. 우리는 따라서 Orechionni의 분류를 택하고 거기에 예의 준칙과 화자의 명백한 오류가 포함된 발화나 이중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발화의 수용시 적용되어야하는 법칙으로 상황우선의 준칙을 추가하였다. 예의 준칙은 특정 문화에서 두드러지며 다른 준칙들과 대립할 때 일반적으로 우선 적용된다.

20) 담화 공간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줄고 '담화 공통 공간에 관한 연구' 1992 참조

담화 준칙이 갖는 사회 문화적, 언어학적, 심리적 위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도깊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담화준칙과 특정 문화나 사회에 고유한 관습적 요소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일은 사회학이나 민족지학(éthnographie de la communication)의 도움을 받아야 할것이다. 담화준칙이 갖는 심리적 위상은 J.Caron 에 의하면 두가지 가설이 가능한데 하나는 미리 설정된 의미해석에 나중에 맥락에 의해 조정된 의미가 개입하는 추론 규칙으로 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의미구축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반 제어 규칙으로 볼 것인지는이다.²¹⁾ 담화 이해 과정이 화자의 제보적 의도에 대해 수립 가능한 모든 가설을 나열하고 서열을 매긴 후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게 아니고 거의 즉각적으로 최종적인 적합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후자가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담화 준칙에 관계하는 여러요인들을 살펴볼 때 발화 분석시에 화용적 차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언어학에 화용론을 통합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가 본 논문에서 제시한 담화준칙들이 일상 발화의 생성과 해석을 완벽히 설명하기엔 여전히 미흡하다. 의사소통 상호작용의 일반적 조건과 형성과정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21) Caron, 1983, p.104

참 고 문 헌

- E. Marc et D. Picard, 1989, *L'interaction Sociale*, P.U.F p.139-161
- E. Goffman, 1987, *Façon de parler*, traduit par A. Kihm, Editions de minuit.
- C. Baylon, P. Fabre, 1990, *Initiation à la linguistique*, Nathan université p.161-182.
- C. Kerbrat-Orechionni, 1986, *L'implicite*, armand-colin p.161-298
- D. Maingueneau, 1991, *La pragmatique pour le discours littéraire*, Bordas
- J. Caron, 1983, *Les régulations du discours*, P.U.F
- J. Moeschler, 1985, *Argumentation et conversation*, Crédif-Hatier
- J. Verschueren, 1980, *A la recherche d'une pragmatique unifiée*, *Communications*,
p.274-284
- J. Cervoni, 1987, *L'énonciation*, P.U.F
- D. Sperber; D. Wilson, 1986,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Blackwell.
- 김태욱·이현호 역, 1993, *인지적 화용론*
- 김종인, 1989, *텍스트 언어학소고*, 한국 불어 불문학회
- 최재호, 1988, *Le sujet en coréen*, Paris 5 대학 박사 학위논문
- 최재호, 1992, *담화 공통 공간에 대한 연구*.

여 백